

축산 뉴우스

산지초지개발에 관한 심포지움

- 각계대표 17명참석, 열띤 토의벌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보현)은 지난 11월 11일 동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농수산부와 축협중앙회 후원으로 「산지초지개발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은 김보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오전에는 농수산부 송찬원축산국장을 좌장으로 동 연구원 김형화박사등 5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오후에는 동 연구원 김영진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각계에서 참석한 17명의 대표들이 열띤 토의를 벌이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토의에 있어서 산지나 초지이용의 경제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이를 개발하는 방법과 방향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영진박사는 앞으로 남아있는 중요한 문제는 적당한 땅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초지로서 적당한 곳은 임지로서도 적당할 것이므로 이를 조화있게 해결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어느 것이 국가를 위해서 더 보탬이 되느냐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낙농기술강습회 개최

- 한국낙농비육협회 주최로 -

근래에 와서 양축업 특히 낙농이 전업화되면

서 그 경영규모도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최근의 공급원인 한우의 농가당 수용능력의 제한과 외국산 도입육우의 시대적인 민족감각의 차이에 대한 무지와 또한 품토의 적응성의 무비판등으로 그 성과의 명암을 판별하기에는 우리의 총체적인 자세가 미비하여 금번 한국낙농비육협회(회장 황영구)에서는 미사로 목물협회 후원으로 11월19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성환, 광주, 부산을 순회하며 낙농기술 강습회를 개최했다.

비육우 사양관리에 관한 Garg Rohwer의 강연에 이어 황영구회장의 외국의 축산실태와 산지이용, 농수산부 이 인형낙농과장의 축산진흥과 산지개발계획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 낙농의 전업화에 따른 낙농기술 순회 강습회

사료·축산시찰단 출국
- 미개척분야 실태도 파악 -

사료업계 및 사료품질관리위원들로 구성된 사료·축산분야 시찰 및 실태조사단(단장 이경원)이 ASA(미대두협회)의 초청으로 11월27일 출국했다.

이 시찰단은 12월12일까지 미국에 머물면서 시카고곡물시장현황을 파악케 되며 국제양돈품평회, 걸프지역 곡물선적실태등도 살핀다.

특히 한국에는 아직 미개척분야인 내수면 어업및 양어사료에 대한 실태도 파악하게 된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또 다른차원의 농경지라 할수 있는 유휴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에 대한 재인식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찰단은 다음과 같다.

▲ 이경원 미대두협회 한국지부장 ▲ 권영우 농수산부사료과유통계장 ▲ 김종국 축협구매부사료과장 ▲ 지규만 고대교수 ▲ 서정복 삼진사료상무 ▲ 최재수 경북축산상무 ▲ 지길성 사료협회차장

내년도 육우도입요령 변경

- 도입소값 한우기준 82~90% 수준책정 -

농수산부는 내년도 육우도입 물량을 당초계획 5만두로 늘림과 동시에 도입우 농가분양가격을 샤로레(심멘탈교잡종포함)는 국내한우가격의 90%, 헤어포드및 기타종은 82% 수준에서 책정하는 등 도입요령을 변경했다.

농수산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도입육우에 대한 신청이 과열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육우도입계획을 농가 입식용 2만8천2백50두, 생축비축용 3천두(숫소), 특별사업용 1만8천7백50두(영세농 자립지원 7백50두, 복합영세농지원 8천두, 낙후마을 지원 1만두)

로 잡고 있다.

입식규모는, 분업규모는 우선 70%내외이며 전·기업규모(6두이상)는 30% 내외에서 입식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비축용과 계통출하분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암소를 도입하는 한편 분양가격을 도입우 도착시 축협이 조사한 전분기 한우평균가의 90%(샤로레및 심멘탈교잡종) 혹은 82%(헤어포드및 기타) 수준에서 책정기로 했다.

따라서 도입가격과 분양가격에서 생기는 20~30만원의 차액은 축산진흥기금으로 조정되는데 이 기금은 도입육 가격 하락시 가격보진, 도입육우의 송아지 생산장려금 및 기타 축산진흥사업에 사용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육기반은 암소및 종모우 1두기준, 암소 5두이하 입식농가는 ▲ 개량초지 0.1ha ▲ 답리작사료작물포 0.1ha ▲ 야초지 0.3ha중 하나를, 암소 6두이상 농가는 ▲ 개량초지 0.4ha ▲ 개량초지 0.2ha 와 사료포 0.1ha 또는 답리작사료작물포 0.2ha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한편 대상자 선정은 시장 또는 군수가 사육기반 및 배정물량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는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선정, 지역축협과 사전협의를 거쳐 최종확정기로 했다. 따라서 도입우 입식을 원하는 농가는 12월 9일까지 시·군축협에 신청해야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전공학육성 국가적 차원으로

- 학계 산업계, 입법 추진 -

최근 유전공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계 및 산업계 등 관계자들이 유전공학 육성법의 필요성을 인식,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입법사상 어느 특정한 과학기술분야의 집중적인

육성을 위해 특별법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의 입법논의 및 그 타당성제시는 기술도약국을 꿈꾸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꼭 고무적이다. 유전공학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식량에너지 공해문제의 해소를 위한 가장 적합한 산업이라는 데 그 중요성은 크다.

유전공학은 지난 53년 DNA의 구조가 밝혀지면서 각광을 받은 분야로 우리생활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깊이 고려해 볼직하다.

그동안 유전공학육성을 위해 유전공학연구조합이 조직되어 유전공학육성법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고 유전공학연구협의회는 협의회대로 육성법을 초안했으며 한국과학기술원에서도 법적인 뒷받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유전공학진흥 및 유전공학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관계부처간의 종합적인 업무조정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15 인으로 구성되는 유전공학 종합 정책심의회를 두고 이 심의회에서는 ▲ 유전공학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이에 관한 중요정책의 조정 ▲ 개발 연구 예산에 관한 종합적인 조정 ▲ 연구인력개발 ▲ 유전공학관계기술의 협정과 도입에 관한 사항등을 다룬다는 것이다.

유전공학의 특성은 미생물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화학등 생명과학의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두뇌집약형으로 각국이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다른 나라와 기술경쟁이 가능하다. 더우기 기술개발이나 제품생산을 위한 거대한 장치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투자나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유전공학이 가진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자연자원이 부족하고 기술선진국들의 높은 기술수준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은 중요한 정책결정이 될 수 있다.

물론 유전공학이란 유전자를 조작, 새로운 형질을 나타내게 하는 좁은 의미의 것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세포액의 치환기술, 세포핵 융합 기술까지 포함되며 나아가서는 발효산업, 효소공업, 조직배양등 포괄적인 생물공업의 의미가 포함된다.

다만 현재 우리의 문제는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다.

한때 기적을 낳을 것만 같은 유전공학이 세계적으로 주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까닭은 유전자를 조작, 새로운 형질을 나타내는 생물을 만들긴 했으나 계속 같은 성질을 나타내는 안정성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5년간에 3백여개가 생겨났던 미국의 유전공학 회사들 가운데 50여개가 문을 닫았다. 그러나 유전공학이 가진 매력은 대단한 것, 인류는 결코 유전공학의 매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유우값 보합세유지

- 생후 16개월 2백만원선에서 -

최근 유우와 육우거래 가격이 보편적으로 완만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생후 6~8개월된 샤로레가 추석전보다 10~20만원이 오른 1백20~1백3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등 중부지방의 생우숫놈은 70~8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암놈은 1백~1백45만원에 1년생은 숫놈 1백45만원 암놈 1백70만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이 밖에 또 앵거스는 추석전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

젖소는 10~16개월 된 것이 거래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두당평균가격은 1백80~2백만원이다.

축산물 계통출하 20 억원 돌파

- 협업 공동생산 기반 굳혀

농협 서울시지회 북부단협(조합장 김 태혁) 관내 하계축산작목반은 축산물계통 출하 20 억 원돌파 기념식을 가졌다.

도봉구 하계동 305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이 작목반은 75년 회원 30명으로 조직, 돼지사육을 어렵게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은 회원 90여명이 비육소 1천 9백20여마리, 폐지 5백80여마리를 기르는 작목반으로 성장, 81년 계통출하목표 8억 5천만원을 2배이상 초과달성한 17억 7천 7백만원의 실적을 올린 것을 비롯, 올해도 6억 3천만원의 계통출하목표를 2백60%나 초과, 22억 6천 3백만원을 지난 9월 30일 현재로 달성, 전작목반원과 단협임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20 억원돌파 기념식을 가진 것이다.

이들은 앞으로 작목반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도시근교 축산농가의 협업과 공동생산·공동출하에 적극참여, 축산물 수급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대규모 사슴목장 추진

- 여주에 30 만평 단지 확보 -

경기도 여주에 30 만평의 목장지를 확보하고 2천마리의 엘크(ELK) 사슴을 도입하여 대단위 사슴목장을 경영하는 계획이 외국인투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계획은 재미사업가 왕종택씨(우진인터프라이즈회장)가 23일 재무부에 사슴목장경영을 위한 외국인투자인가를 신청함으로써 밝혀졌다.

계란값 고시 현실화

- 가격고시 정착에 적극 노력 -

전국계우회 연합회(회장 고태영)는 그간 계란값 고시를 양계장 판매가격에서 2원씩 높여 도매가격으로 고시해 오던 것을 11월20일부터 현실화 하여 양계장 판매가격을 고시하기로 난가고시 상인대표와 합의 실시키로 했다.

고시가 현실화 하게된 동기는 이중난가로 채란업자들에게 혼란을 주며 세무자료 문제로 세무조사시에 고시가격을 양계장판매가로 인정하므로서 많은 이익금이 발생, 세부담이 많아져 채란업자에 손실을 주고 있으며 다량소비처인 제빵공장, 식품공장, 슈퍼마켓에서 이중가 고시(도매가)로 소비위축까지 오는 경우가 있어 부득이 고시가격을 현실화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합회로 문의(966-0310)하면 된다. 11월20일자로 현실화된 인상가격은 아래와 같다.

특란 : 43 대란 : 37 중란 : 34 소란 : 32 경란 : 29

추곡수매농가 자금갈증 여전

- 책정된 양 앞당겨 수매 요망 -

추곡수매차례를 기다리는 농민들의 목이 탄다. 농수산부는 올해 추곡수매량을 7백만섬으로 잡고 6백만섬은 연말까지, 나머지 1백만섬은 내년 1월20일까지 사들인다는 계획아래 지난 10월 29일부터 작업을 시작했는데 수매량 자체가 적은데다가 배정받은 양도 한꺼번에 낼수 없어 농민들은 자금갈증이 풀리지 않고 있다.

농수산부는 수매과정에서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계획 수매를 실시키로 하고 농가별출하량을 새마을 영농회에서 배정하고 수매일자를 미리

통지, 수매장에서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고는 있으나 농가가 내는 쌀을 한 묶에 사주는 것이 아니라 2~3차례로 나누어 수매하고 있어 농민들이 한달에 한번꼴로 수매장에 나가야 하는 형편이다.

이같이 1회수매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수매자금을 마련하려면 양곡증권이 소화돼야 하는 등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크고 검사인력도 달리기 때문인데 농민들은 배정받은 출하량이 희망량에 훨씬 못미칠 뿐 아니라 분산수매로 대금도 푼돈이 배버린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농민들은 쌀을 갖고 있어봤자 값이 오를리도 없고 농사지으며 빌어쓴 빛이자만 늘어나 정부 수매가보다 가마당 4천~5천원을 덜 받고서라도 시장에 내다 팔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미 책정된 수매량만이라도 시기를 앞당겨 목돈을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망하고 있다.

한편 농수산부는 18일 현재 3천6백50억원의 수매자금을 각도에 배정, 계획량의 35%인 2백45만섬을 매입했다.

제 2 회 전국양돈인대회 개최

- 양돈 경영 안정에 대한 강연도 -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회장 전동용)는 지난 11월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국제회의장에서

양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영안정의 목표달성을 위한 양돈경영안정추진위원회 창설을 기념키 위한 전국양돈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강인회농수산부차관, 안갑준, 민병조국회농수산위원, 김일로축협중앙회장, 이상윤대한양계협회장 등 축산관련 인사와 전국 6백여명의 양돈인이 참석했으며 전동용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전국양돈인이 단결하여 양돈경영전문화시대를 개척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또한 대회가 끝난 후 허신행 농경연 농정연구실장의 양돈경영안정과 양돈인의 자세 정립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다

미양돈시찰단 출국

- 유통현황·돈육가공등 파악 -

미국양돈업 시찰단(단장 전동용)이 11월27일 출국했다.

이들 일행은 20일 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양돈유통과 돈육가공현황등을 시찰하게 되는데 많은 양돈관련인사와 기업들도 예방할 예정이다.

특히 돈육이 상품화 되기까지의 유통체계 연구등은 우리나라 양돈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사료곡물협회, 미농성, 대한양돈협회 공동 주관으로 시찰케 될 이번 시찰단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전동용 대한양돈협회장 ▲ 김영진 농경연 연구위원 ▲ 심영근 서울대교수 ▲ 이인혁 제일 종축대표 ▲ 양재관 한국햄전문 ▲ 유소열 제일 축산전문 ▲ 박영인 미사료곡물협회한국지부장

식물성장촉진호르몬 트리아콘타놀

- 배추등 발작물은 60%나 증수 -

식물성장촉진 호르몬인 트리아콘타놀(Triacontanol)에 의한 녹색혁명이 한걸음 다가왔다.

트리아콘타놀이 식물의 생육과 결실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해 온 서울대농대임용규 박사는 그간 무우, 배추, 오이 등 발작물에서 큰 효과를 본데 이어 벼의 포장실험에서도 최고 16.6%의 수량증가 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 1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임박사는 이같은 증수결과를 학계에서 정식 보고할 예정이며 전국 규모로 시험재배에 성공할 경우 본격적인 보급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박사팀은 지난 2년간 트리아콘타놀에 대한 실험결과 무우, 배추, 오이등 발작물에서는 최고 60% 이상의 증수효과를 확인했었다.

축협, 소·돼지·닭등 수매비축 - 내년에 3백88억 자금배정 -

축협중앙회는 축산물가격의 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내년에 축산진흥기금에서 3백88억 6백만원을 배정, 한우·돼지·분유등을 수매 비축키로 했다.

22일 축협이 마련한 축종별 수매규모를 보면 한우가 6천마리로 1백1억9천만원, 돼지가 16만 마리로 2백63억8천1백만원, 닭이 50만 마리로 6억6천9백만원, 분유가 5백톤으로 15억6천6백만원등이다.

분기별 수매규모는 분유의 경우 1·4분기중에 모두 수매하고 한우는 상반기 중에 2천마리를, 돼지는 상반기에 9만6천마리, 하반기에 6만4천마리, 닭은 1·4분기에 20만마리 등이다.

축협은 축산물가격이 홍수출하등으로 크게 내려갈 경우 계획범위내에서 이를 수매, 성수기에 방출함으로써 수급및 가격안정을 꾀해나갈 방침이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 축산물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 계획대비, 수매실적이 부진한 편

인데 한우는 2천2백50마리 수매계획중 1백20마리를 수매했으며 돼지는 10만마리 계획에 수매는 없었다.

한편 지난 74년을 고비로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던 소(한우) 사육수가 계속늘어나 작년말 현재 1백31만2천마리에서 6월엔 1백43만1천마리 12월엔 1백45만마리로 증가했고 내년 6월엔 1백55만마리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파동이 우려되는 돼지의 사육수도 9월 현재 2백38만5천마리에서 내년 6월말엔 2백60만마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같은 현상은 매년 수입 쇠고기의 적정량 방출로 도축수가 감소한데다 한우가격의 상승에 따른 수익증대로 소사육의욕이 고취됐으며 이와함께 육우종아지의 도입이 크게 늘고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복합영농 지정농가 도입소입식

- 육우·젖소·번식우등 2만5천두 -

농수산부는 복합영농 단지로 지정된 농가에 벼 혹은 보리와 특화작목외에 보완작목으로 도입육우, 젖소, 번식우 등 모두 2만5천두를 입식키로 했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도입육우 8천두, 젖소 1천두, 번식우 1만6천두를 복합영농 보완작목으로 지정, 참깨, 땅콩, 유채·백주맥·호프·옥수수등 특화작목으로 정한 시범마을에 우선 입식키로 하는 한편 입식 대상농가의 우선순위를 사육 및 조사료 자급기반이 조성된 농가, 특화작목의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협동및 자립의욕이 강한 농가, 소를 사육하고 있지 않으나 입식을 원하는 농가에 두기로 했다.

또 마을당 입식한도는 50두 이내로 농가당도 입육우 2마리, 번식우 2~3마리, 젖소 5마리

로 제한하고 입식기반은 젖소의 경우 초지조성 면적 1두당 0.5ha, 도입육우의 경우 1두당 개량초지 0.1ha, 담리작사료작물 0.1ha, 사료작물 0.1ha 또는 야초지 0.3ha 중 어느하나를 갖추면 된다.

한편 각도별 도입육우 젖소, 번식우를 포함한 입식두수는 ▲ 경기도 3천 2백20두 ▲ 강원도 1천 7백80두 ▲ 충북 1천 7백80두 ▲ 충남 3천두 ▲ 전북 2천 7백80두 ▲ 전남 4천두 ▲ 경북 4천 2백20두 ▲ 경남 4천두 ▲ 제주 2백20두 등 모두 2만 5천두이다.

시범축산계 육성

- 축협, 내년 1조합 1계씩 -

축협중앙회는 내년부터 조합당 1개씩 모두 1백여개의 시범축산계를 육성키로 했다.

축협의 이같은 방침은 조합의 하부조직 기능 강화와 조합사업 확충은 물론 조합과 조합원의 밀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부터 이에 따른 시설을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지역축협이 시·군단위에 위치함으로써 읍·면단위 조합원들은 거리, 시간등으로 조합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축산계 육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검토됨에 따라 한층 조합활력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처음 입찰공고

- 인송농장, 농장현지서 27마리 -

인송농장이 지난달 17일 국내에선 처음으로 농장현지에서 젖소 27마리에 대한 입찰을 실시했다.

이날 입찰은 경기목장 등 모두 8개 농장에 육성우등 15두가 낙찰됐다.

낙찰된 젖소중 1년생(81년 11월 2일생) 육성우 한마리는 본등록된 것으로 1백93만원에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2~5개월짜리 숫소 송아지는 1백만원선에서 낙찰됐다.

한편 이날 입찰은 종래중개상에 의한 젖소거래 방식을 탈피, 실수요자들간 능력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데서 많은 축산관계인들은 「젖소거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입을 모았다.

닭·돼지전염병 신고 기피

- 올해 닭 11만마리, 돼지 5천 8백마리 피해 -

가축이 법정 전염병으로 폐사처분됐을 때 소에 대해서만 지급해 온 보상금을 돼지나 닭 등 중소가축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울들어 돼지·닭 등에 법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발생, 양축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나 이에 따른 보상대책이 전혀 없어 농가에서 병발생신고를 기피하는 것은 물론 병발생사실조차 숨기고 병든 가축을 내다파는 등으로 해서 질병이 확산되어 가축방역을 어렵게 하고있기 때문이다.

올해 돼지·닭등에 크게 발생한 법정 전염병은 지난 2월, 경기 강화에서 발생된 닭 전염성후두기관염(ILT)과 9월 경남 김해지방에서 발생된 돼지 「콜레라」등이다.

이중 닭 후두기관염은 외국에선 지역병 이라 불릴 정도로 방역만 잘하면 다른 곳으로의 오염을 거의 막을 수 있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두세달 만에 전국적으로 번져 모두 1백60만마리나 발병, 농수산부 집계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이중 11만마리가 죽는등의 큰 피해를 냈다.

한편 돼지 「콜레라」는 지난 9월중순 경남 김해에서 발생된지 달포만에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9천 3백26마리에 발생, 10월말 현재 5천 8백18마리가 폐사된 것으로 공식집계됐다.

이같이 닭후두기관염이나 돼지「콜레라」등 가축전염병이 큰 피해를 내면서 삼시간에 전국으로 번진 것은 처음 발생한 농가에서부터 병발생 사실을 숨긴 채 병든 가축을 싸게 팔거나 수집상을 통해 급히 처분하는 등의 악순환이 계속된 때문인 것으로 관계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법정전염병에 있어서 병 발생 즉시 축주나 진료수의사가 행정기관에 신고, 법정전염병임이 확인되면 도지사명의로 즉시 폐사처분토록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돼 있으나 이경우 돼지나 닭을 키우는 양축농가에서는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어 신고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신고기피 현상은 부업양돈농가 보다는 1백마리 이상을 키우는 전업·거업 양돈장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돼지 「콜레라」가 올해 처음 집단발생된 것으로 알려진 참모씨(경남 김해군 생림면) 양돈장의 경우 지난 9월 경기 평택·도산등지에서 구입한 5백마리의 새끼돼지중 병든것이 발견되자 죽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급히 헐값에 처분했다는 것.

김해지구축협 정한조조합장은「양축농가의 입장에서 가축은 그들의 전재산과도 같은 것인데 아무 보상도 없이 신고후 폐사처분토록 돼 있는 현재의 법규정은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법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의 주인이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공기업 수의사가 병발생을 알고도 신고치 않을 때는 3년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같은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은 농민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가축예방법 시행령에는 법정전염병이 호인돼 살 처분 할 경우 깃가의 50%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 이 규정은 소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어 돼지나 닭등은 사실상 제외돼 있다.

안양가축위생연구소 박근식과장은「가축예방법 자체가 일제 때 조선총독부에서 소를 중심으로 만든 것을 거의 답습한 것으로 우리 방역체계가 관주도형 소의 방역위주로 돼 있어 돼지나 닭등은 도외시 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과장은 현재 가축방역의 가장 큰 문제점인 피해농가의 신고체제를 하루 속히 바로잡기 위해서는 돼지나 닭에 대해서도 보상제를 실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농수산부 김병래 가축위생과장은「예산이 없어 돼지·닭등 중소가축에 대한 보상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있어 가축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최소한 돼지에만이라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민 신문에서>

계 뇌척수염(AE) 백신 시판재개

- 3개월만인 12월중순부터 -

지난 9월15일을 끝으로 그간 절품에 들어갔던 계뇌척수염(AE) 백신이 품절 3개월만인 12월 중순부터 다시 시판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때 수입에 의존하여 왔으나 국내에서 생산됨에 따라 국산으로 대체되어 현재 종계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종계의 경우 산란전에 접종하여야 하는등 수요시기가 한정되어 종계장의 피해는 의외로 클 수가 있다.

이번 3개월 간의 절품되었던 것을 교훈삼아 앞으로는 모든 백신수급에 차질이 없어야겠다.

「파이오니아치킨」 한국진출

-간이음식 곧 시판예정-



△유망업종인 간이음식(패스트푸드)업

·햄버거등의 서구식 간이음식이 우리나라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

1 일 동사에 따르면 파이오니아 코리아 코포레이션은 25만달러의 로열티(기술대가)를 지불하고 3년동안 한국전역의 독점판매권을 얻었는데 판매음식은 치킨을 비롯해 햄버거·생선튀김·감자튀김등 50여종류이며 내년3월초에 명동·반포·영등포로터리·영등등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미국서부지역에만 3백개점포를 갖고있는 파이오니아치킨의 한국진출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식생활 개선외에도 86년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 때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겨냥하고 있다.

파이오니아 치킨이 상륙함으로써 롯데리아·아메리카나·철타리·던킨·도나츠등 우리나라 간이음식(패스트푸드)업체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동물백신 국내최초 중동수출

-녹십자, 파키스탄계기로 내년부터 본격-

녹십자수의약품(대표 장인상)이 국내에서

미국서부지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파이오니아 치킨이 한국에 상륙한다. 파이오니아 코리아 코포레이션(대표 이수정)은 미국의 파이오니아 테이크아웃 코포레이션과 기술계약을 체결, 지난달

26일자로 정부인가를 받음으로써 치킨·생선튀김

유일하게 돈콜레라를 비롯 동물용백신을 필립핀 등에 이어 파키스탄·타이에 수출하게 됨으로써 국내산 동물약품인 돈콜레라백신이 세계적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게 됐다.

녹십자수의약품은 그동안 필립핀에 이어 타이 등 동남아 지역과 파키스탄에까지 동물용 백신을 수출하게 됨으로써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중동지역으로 동물용의약품을 수출하는 업체가 됐다.

특히 이번에 동물용백신을 수출하게 될 파키스탄은 중동지역의 농업중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농업분야, 특히 축산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른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동사는 이를 계기로 중동지역전역에 대한 수출을 계속 증대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류소비홍보 영화제작

-라디오용 CM송도 제작-

축협중앙회 홍보실은 육류소비구조를 쇠고기에서 닭고기와 돼지고기로 바꾸기 위해 현재의 홍보외에 10분짜리 36mm 총천연색 필름을 제작하여 전국 영화관은 물론 원하는 곳에 배부할 예정이다. 또 기존 TV 홍보용 VTR-CMCF도 돼지고기 1등 닭고기 2등으로 방영되어 양계업자들의 불평을 들어왔으나 이번에 이것도 전면 개작한다. 라디오용 CM song도 제작하여 홍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83년부터는 정부의 식생활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홍보할 것으로 보여져 금년과 같이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등 축산물 위주의 홍보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 축산인들은 벌써부터 크게 우려하고 있다.

쇠고기 수입으로 가장 큰 영향을 직접 받는 것은 양계·양돈업자이며 이로인해 조성된 축

산기금으로는 양계·양돈업자를 위해서 더욱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홍보를 양축가들은 원하고 있다.

경기도 수의사회 가축방역강습회 개최

- 수의임상 보수교육도 개최 -

경기도 수의사회가 주관한 82년 가축방역 및 수의사 보수교육이 지난 10월 28일 개최되었다. 경기도 식산국장의 축사, 대한수의사회 윤패병회장의 인사가 있는 뒤 「경기도 축산현황 및 도지사사황」(전기영:경기도축정과정과정) 「제 4 위 전위증에 대하여」(정창국:서울대 수의대) 「최근의 돼지질병발생동향과 방역요령」(권영방:가축위생연구소) 「전염성후두기관염의 예방대책」(박근식:가축위생연구소) 「최근에 문제되는 소의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하여」(전무형:가축위생연구소) 「소동물의 주요전염병의 치료 및 예방대책」(조길현:미군오산병원) 과 김법래, 농수산부가축위생과장의 특강 외에 회원들의 임상발표가 있었다.

돼지고기 요리전문가 초청

축협중앙회는 자유중국의 세계적 돼지고기 요리 전문가인 부·페이 메이 (Fu Pei mei) 씨를 초청하여 12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종로구 청진동에 있는 서울 농협 강당에서 요리 강습회를 갖는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에 걸쳐 개최될 이번 요리강습회에는 우리식성에 맞는 새로 개발된 6가지의 돼지고기 요리가 선보이며 시식회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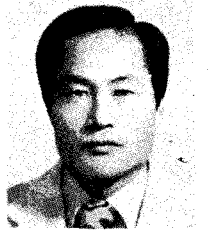
많은 참석을 바라며 특히 가정주부, 요리전문가, 요리사, 기관소비처에서 많이 참석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단미사료협회 총회개최

- 회장에 이남재 대일사료공업사 대표 피선 -



〈이 남재 회장〉



〈양 효진 부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는 제 4 차 정기총회를 지난 11월 18일(목) 오후 2시 서울가든호텔 2층 릴리홀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82년도 주요사업보고, 예산집행(안) 검토, '83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가 있었으며 새로운 임원의 개선포도 있었다.

이날 임원개선에서 신임회장에는 대일사료공업사 대표 이남재회장이 선출되었으며 부회장 2명에는 이중희씨가 유임되고 양효진씨가 새로 선임되고 김군선, 남기수씨가 신임이사로 선임되었다.

이남재회장은 78년 동아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하고 현 대일사료공업사 전신 한일어분공업사를 74년에 설립 경영하고 있으며 부산시 배구협회 이사, 부산시 엄궁동 청년회의소 명예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날 개선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 장 : 이남재

부회장 : 이중희, 양효진

전무이사 : 유동준

이 사 : 강대준, 박용화, 박균용, 이수영,

장지식, 김항태, 서태수, 전대홍,

임상배, 김군선, 남기수.

감 사 : 최병규, 이선우

한국사료성분표 발간

- 한국사료정보센터 미국
국제사료연구소와 공동으로 -



한국사료정보센터 (소장 한인규)는 미국 유타주립대의 국제사료연구소(소장 L. E. HARRIS)와 공동으로 국내에서 가축사료로 사용되는 각종 사료자원의 화학적조성 영양적가치에 대한 자료를 수록한 한국사료성분표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한국사료성분표는 가축의 사료 및 영양관계 연구자 및 지도사들과 배합사료 제조업자, 사료자원을 이해하기 위한 학생, 관련 업체에 있어 값비싼 자료가 될 것이다.

본책자는 한국사료정보센터의 한인규소장과 장윤환 재정위원장의에도 유타주립대, 유타주립 농업시험장, 축산, 수의학과 부설 국제사료연구소의 공동연구에 의해서 작성되고 미국측에서 인쇄비재정부담을 맡아주었다.

제23회 전국농업기술자 대회

- 증산의 역군들, 2,500여명 참가 -

23년의 빛나는 전통을 자랑하는 전국 농업기술자대회가 12월 7일 세종문화회관별관에서 사흘동안의 알찬 생산적인 행사로 막을 올렸다.

숙원이던 농업기술진흥관을 마련하고 자축을 겸해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2천5백명이 상 참가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전국 농업기술

자대회는 우리나라 농민운동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빛나는 전통을 쌓아 올렸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전환기에 놓인 한국농업의 진로와 스스로의 사명을 일깨우고 농업증산과 농가소득증대로 국력배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열렸다.

제8회 전국 판매점 세미나

- 한국화이자, 호텔 서울올림피아에서 -

한국화이자(주)(대표 김중배)는 12월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호텔 서울 올림피아에서 금년들어 8번째를 맞는 전국 판매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종상실장의 개최사를 시작으로 전국 약품 판매점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 70여명의 전국 대리점 대표가 참석했으며 또한 이번 세미나는 전례없이 조용하고 의미있는 것이었다.

첫날 세미나에서 각 제품의 특성에 관한 부수적 설명과 송아지의 질병관리, 한기춘외대교수의 「국내외의 경제전망과 기업대책」, 이규태는 설위원(조선일보)의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인간관리」의 강연이 있었고 둘째날에는 「양계 및



△ 제8회 화이자 전국 판매점 세미나

양돈시장의 전망」과 김형성 연세대 교수의 「직장인의 가치관」, 안병욱 송전대 교수의 「경영인의 능동적인 정신자세」에 관한 강연이 있었다.

**제 2 회 아시아 · 태평양
축산학회 총회및 학술대회**

- 17개국대표 7백여명참석, 성황이뤄 -

제 2 회 아시아 · 태평양 축산학회(AAAP)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지난달 9일부터 14일까지 5일동안 상하의 도시 필리핀 마닐라 국제회의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 폐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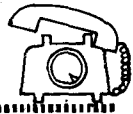
주최국인 필리핀을 비롯해 한국, 말레이시아 · 미국 · 나이지리아등 총 17개국대표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는 지난 80년 9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에서 가진 창립대회 이후 처음으로 열린 매머드 국제회의였다.

또 이번 총회에서는 대만이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차기총회를 85년 5월 서울에서 개최기로 합의하고 새회장에 한인규박사(서울대 교수), 부회장에 김춘수박사(KAIST), 해네시 박사(뉴질랜드 축산학회장), 사무총장에 김현욱박사(서울대교수)가 선임되어 총회업무를 인수받았다.

이번 총회 및 학술대회의 참가자는 다음과 같다.

- | | |
|----------------|-------------|
| 홍병규 : 유한코락스 대표 | 임상규 : 부국사로 |
| 한인규 : 서울대교수 | 유수환 : 금성제분 |
| 박홍석 : 전북대 교수 | 임병규 : 서울사로 |
| 한성욱 : 충남대 교수 | 정용기 : 영남가축 |
| 이규승 : 충남대 교수 | 홍종대 : 마전농장 |
| 장운환 : 경북대 교수 | 심혁창 : 삼형제농장 |
| 지설하 : 국립축육장장 | 이 원 : 소영 농장 |
| 김창근 : 중앙대 교수 | 이종열 : 삼진농장 |
| 육종용 : 서울대 교수 | 최중명 : 새해축산 |
| 송계원 : 한국축산학회회장 | 이봉훈 : 동양불산 |

- | | |
|--------------|-------------|
| 김진욱 : 서부사로 | 박용부 : 동영불산 |
| 이두현 : 홍성사로 | 이해범 : 선진사로 |
| 길지용 : 삼우화학 | 이정근 : 유리나사로 |
| 한휘연 : 홍진양행 | 김수문 : 제일화학 |
| 김중용 : 삼부목장 | 김용복 : 제일화학 |
| 정해용 : 신촌사로 | 최인환 : 남성산업 |
| 유규열 : 향미양행 | 조동석 : 한일사로 |
| 장낙필 : 아세아 향미 | 이범재 : 한일사로 |
| 윤정로 : 독바위농장 | 이철용 : 경기사로 |
| 윤윤학 : 신래농장 | 박병삼 : 경기사로 |
| 한태식 : 축협중앙회 | 조진홍 : 경기사로 |
| 박관섭 : 축협중앙회 | 이광우 : 두산목산 |
| 허영호 : 축협중앙회 | 박종배 : 바이엘 |
| 이강록 : 인성농장 | 김민수 : 안양축협 |
| 지규만 : 고려대 교수 | 김창원 : KAIST |
| 홍연표 : 대홍농장 | 홍순호 : 과학사로 |
| 우창현 : 유한코락스 | 한상은 : 과학사로 |
| 김중구 : 한흥산업 | 김부운 : 과학사로 |
| 이규식 : 경북축산 | 김성열 : 덕수가축 |
| 정상연 : 우성사로 | 조성기 : 삼남목장 |
| 김현석 : 중앙축산 | 이원진 : 삼진사로 |
| 장대석 : 동진화학 | 권금범 : 삼진사로 |
| 전병찬 : 제일중축농장 | 이영자 : 농수산신보 |

업계단신 

○천호통산<주>(대표 김명근) : 새로운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영업부에 조영태(전 동방유량 업무부근무)씨를 11월 1일부로 특채했다.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선임이사 강희구) : 동조합의 사무실용 회관을 여러 조합원과 공판장 및 유관기관의 협조하에 대지 89평, 3층 연건평 147평의 새건물로 지난 11월 27일자로 이전했다.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면목동 605-41호
전화 : 조합장실 - (432) 1398
사무실 - (432) 0010, (433) 5204

○**송계원, 육종음박사 회갑기념 출판물 증정식** :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송계원, 육종음교수 화갑기념 출판물 증정식이 지난 12월 4일 오후 2시 수원시 서둔동 동교 상록사 구내식당에서 동문, 제자, 관련업체 인사가 다수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한협중계장 (대표 박준영)** : 용준환수의사는 지난 11월 17일부터 27일까지 일본의 코브 GP 농장의 질병세미나에 참석하고 축산관련 부화장, 사료업체, 동물약품업체등을 시찰하고 귀국.

○**최천수 (홍성사료 영업부장)** : 동사 영업부장으로 재직중이던 최천수부장이 11월 15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별세했다.

서울대 축산과를 졸업하고 70년에 입사하여 79년부터 부장으로 재직중 이같은 사고를 당했다. 유가족으로는 김옥정여사와 2남이 있다.



〈최 천 수〉

○**풍념산업 (대표 김봉춘)** : 동사는 12월 1일부로 사내에 동진제강(주)의 펜타이트파이프, 수도관, 구조관, 각 관의 판매대리점을 개설했다.

○**이화약품(주) (대표 이정협)** : 주식회사 이화약품은 업무의 원활과 사세확장으로 전화번호를 변경, 증설했다.

☎ 677-5331 ~ 3, 633-7922 (영업부 직통)

○**한국화이자(주) (대표 김중배)** : 동사는 2/4분기 Top sales로 정국조주임을 3/4분기, 4/4분기에는 차성제씨를 각각 선정했다. 특히 차성제씨는 입사 9개월만에 이런 성적을 내어 팔목성장을 보여 주었다.



〈정 국 조〉



〈차 성 제〉

○**천호계우회** : 민덕기, 윤경중, 이무현, 최정삼, 김인영, 심준식씨는 홍콩 太平山라이온스클럽과 자매결연을 위해 지난 11월 18일 출국 동남아시아의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 일본을 돌아보고 12월 초 귀국.

○**송지산업 (대표 이현숙)** : 업무편의를 위해 전화를 증설했다.

☎ 412-7777, 413-2222

○**홍성사료(주) (대표 정태원)** : 업무능률 향상과 사원 사기양양을 위해 12월 1일부로 사업부 과장에 길경오대리와 조성권대리를 각각 승진 발령하고, 영업부 과장대리에 박길서씨와 강노용씨를 품질관리과과장 대리에 김범열씨, 생산부 과장대리에 허 옥씨, 경리부 과장대리에 문순주씨를 각각 승진발령하는 한편 유창석(고대 축산과), 김성규(중대 축산과), 박병욱(영남대 축산과)씨를 각각 신규 채용했다.

○**경주 홍성부화장 (대표 정상태)** : 전화번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 2-2635, 3-5533, 3-5200

○한인규박사(서울대교수) :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지역 축산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 한인규박사가 동회의 사회장으로 선임되었다.



〈한 인규 박사〉



〈정 채인 위원장〉

○정채인(본회감별분과위원장) : 본회 정채인 감별분과위원장은 이번에 새로이 국제감별학원을 개설했다. 관심있는 분은 다음 주소로 문의.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113-1
전화 : 62-6275.

○은성산업(대표 현순구) : 서울사무소를 다음과 같이 이전했다.

서울사무소 : 종로구 중학동 14 한국일보 12층

○신촌사료(대표 김용태) : 동사는 서울사무소를 11월 27일부로 다음과 같이 이전했다.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47-7,
덕흥빌딩 3층 2호

☎ : 323-2333, 324-1084

○서울미원(대표 임철수) : 서울미원에서는 마크로라이드 계통의 최신 항생제와 설파제의 복합제를 사료에 첨가시켜 양돈가의 고민거리인 폐염(S.E.P), 위축성 비염(A.R)을 배합사료 급여로서 예방 및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를 치료수준으로 배합사료에 첨가하여 주문생산 공급하게 되는데 이같은 일은 국내 사료업계에선 최초의 일로서 양축가의 많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글케미칼<주>(대표 강승조) : 업무의 확장으로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

☎ 463-2352, 464-90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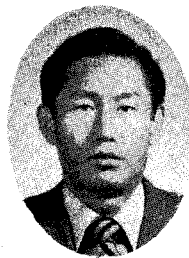
○축협중앙회(회장 김일로) : 이종민부회장과 김동곤이사는 지난달 19일 캐나다 애니멀쇼에 참석하여 견문을 넓힌 뒤 12월 3일 귀국했다. 또한 유재영이사는 지난달 9일 일본 사료공장시찰차 출국하여 업무를 마치고 귀국했다.

○동성기계산업공사(대표 박중욱) : 양축가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사료 자급자족이 이루어질수 있는 기회가 왔다.

20여년간 사료기계장치만 취급했던 동사는 $\phi 1$ (단상) 3마력 모타로 활용할 수 있고 경운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저마력 분쇄기를 개발했다. 이 소형 분쇄기 개발로 동력은 물론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산간벽지나 일반 농촌어느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신개발 상품으로서 중소 양축가들에게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소 :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522-4호

☎ 292-9535~6, 293-8646, 5375.



〈박 중욱 사장〉



〈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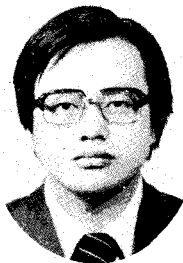
○과학축산시스템(대표 박만후) : 축산기구, 기계제작 및 수입메이커인 동사는 사세확장과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전화를 증설했으며(445-1886) 또한 최인(건대 축산과졸)씨를 특채했다.

○남성산업<주>(대표 최인환): 광물질단미 사료 전문제조 및 판매업체인 동사는 우리나라 축우의 사양조건이 양질의 조사료가 부족하여 유우의 생산성과 경제성에서 애로가 많은 점을 감안, 농후사료 위주의 낙농에서 일으키기 쉬운 저지방유 생산, 산유량감소, 산독증, 고창증 등을 예방 또는 감소토록 반추위내의 PH를 적절하게 유지시켜 주는 Buffer 제(완충제)를 1980년부터 개발 공급해 오던 중 Buffer 효과가 탁월한 Buffer Mix를 개발 공급케 되었다. 관심 있는 분은 아래로 문의바람.

서울사무소: 영등포구 당산동 128-81
 대한 어머니회관 202호

☎ 635-3750

○현대양계사(대표 김종곤): 동사는 업무 확장으로 송재은씨(전 바이엘 근무)를 총무과장으로 김세도씨(전대 축산과졸)를 취재부 기자로 특채했다.



<송 재은 과장>



<김 세 도>

○금성제분<주>(대표 장명식): 거래 양측인의 사양기술향상을 목적으로 시도된 견학계획에 따라 견학단 10명이 일본 배합사료 초청으로 장명식사장의 인솔하에 일본 축산업계를 시찰하고 지난 11월18일 귀국했다.

또한 동사는 직원 해외연수계획에 따라 기획부 차장 류수환씨를 지난달 10일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 2회 아시아 태평양지역 축산학회에 파견했다.

○제동홍산<주>(대표 김용옥): 사양가계위의 협조에 힘입어 신뢰받는 제품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제주사료는 품질향상과 안전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난 11월23일 750톤급 사이로 2기 설치 준공식을 가졌다.

○부국사료<주>(대표 한호섭): 12월12일자로 서울사무소가 아래와 같이 문을 연다.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
 태양빌딩 704호

☎ 783-8891~5

○천호부화장(대표 이계욱): 호주CSIRO 연구소(동물육종 전문연구소)의 유병현박사는 11월21일 동사를 방문했다.

유박사의 방문은 유전자원 평가 및 확보, 진행 중인 육종결과 분석, 새로운 육종계획의 수립 및 실천계획, 연구개발자료수집과 아울러 단계적인 육종연구개발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2월17일 이한예정.

○한풍산업<주>(대표 최죽송): 동물약품 전문생산업체인 한풍산업(주)은 효소제 전문메이커인 일본 AMANO제약으로부터 기술 및 원료를 제공받아 새로운 type의 복합효소제 아마피드-KS를 개발하여 시판에 들어갔다.

소화효소제와 생균제제를 복합처방한 새로운 type의 성장촉진제인 아마피드-KS는 동물의 생산성 저하의 주요원인인 각종 하리증의 예방치료와 육질개선, 성장촉진, 사료효율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

동사는 본 제품의 판매촉진을 강화하기 위해 판매창구를 동호축산(783-0625~6)으로 일원화했다.

○호남농축<주>(대표 정병천): 전북 익산군 팔봉면에 대규모 도계장을 설립한다. 이 도계장은 1일 3만수 처리능력을 갖추며 화란 stock회사에서 최신 자동시설 일체를 수입하여 내년 2월 가동한다.

● 축산 뉴우스

○한경약품판매주식회사 해체 : 그동안 백신과다경쟁을 막고 백신메이커에 시설투자, 제품개발, 유통비용을 줄이고 백신유통질서 확립에 주력하여 온 한경약품판매주식회사(사장 석정중)는 양축가들이 원하는 회사제품을 원하는 시기에 구하지 못하는 불평등 백신유통의 근본적인 문제 즉, 공급체계의 일원화 병폐문제에 의해 해체되었다.

앞으로는 과거와 같이 다시 경쟁상태가 예상된다.

○월간종합축산(대표 조성용) : 사무실 이전에 이어 업무강화로 정영선(명지실전 상업디자인과 졸)씨를 특채했다.

○나주식품공업<주>(대표 나원주) : 노제 및 오리고기 가공업체인 동사는 서울사무소(소장 장재혁)를 개설했다. 관심있는 분은 다음주소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사무소 : 용산구 한남동 1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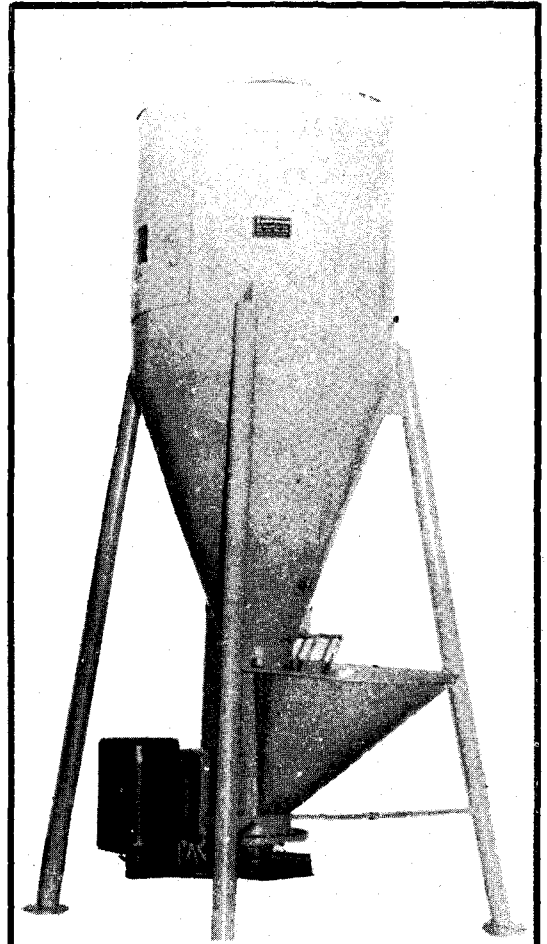
☎ 793-2312

○Atlanta가금박람회 : 내년부터 해외여행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됨에 따라 축산업계의 국제행사에서의 참가열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1월27일부터 29일까지 미국의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가금박람회가 열리며 이어서 5월달에는 17일부터 19일까지 국제 가공식품 박람회가 동 장소에서 열린다. 참가희망자는 전자는 12월15일까지 후자는 내년 1월말까지 대한양계협회(752-6917)로 신청하면 된다.

○제일제당<주>(대표 이수빈) : 동사는 햄·소시지·베이컨등 육가공제품에 첨가, 입맛에 맞춰 먹을 수 있는 소스를 개발하여 발명특허를 획득했다.

○대한사료<주>(대표 김상태) : 동사는 국내사료업계에서 처음으로 저장능력 1백50톤의 최신식 전자동식의 벌크시스템을 갖게 되었다.



사료혼합기

과학적인 설계로 배합속도가 빠르고 배합이 정확하며 모터의 하부 장착으로 안정되게 가동됩니다.

100kg, 200kg, 기타



과학축산시스템

서울·성동구 능동 246-10
☎ 445-0212, 1886